

느림 보다 세수확보 열중 ... ‘이윤 추구의 장’ 변질

마케팅 주력...재인증 심사 준비 소홀

물축제 연계 ‘슬로시티 한마당’ 추진 제동



장흥 한옥마을

◀장흥

슬로시티 장흥 탈락·신안 보류 왜

신안▶

장흥과 신안 증도가 슬로시티 재인증 심사과정에서 탈락 또는 보류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왜 탈락했나=슬로시티에 대한 동서양의 가치관 차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슬로시티국제연맹은 ‘빠름보다는 느림, 채움보다는 비움, 인공보다는 자연’을 중시하는데 장흥과 신안은 관광과 세수확보에 주력하다보니 도시적 인공미와 편리성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신안 증도의 경우 증도대교가 개통되면서 10만명이던 관광객이 8배로 폭증했고 청정환경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온 점이 보류 판단의 요인이 됐다.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 주체를 넘기는 작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자칫 슬로시티가 이윤추구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탈락과 보류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또 슬로시티 지정 후 관광 마케팅에만 주력한 나머지 본말이 전도되고 이 과정에서 재인증 심사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응도 안이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장은 얼마나=당장 브랜드까지 하락에 따른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 전남 4개 슬로시티를 찾은 관광객 수는 인증 직전인 2007년 25만명에서 지난해 128만 명으로 5.5배나 증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슬로시티의 유유자적한 삶을 찾은 경우여서 슬로시티 퇴출은 크든 적든 관광객 유치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또 특화형 등록상표가 장흥에서만 ‘정남진 슬로우

시티 장흥’ 등 3건에 이르고 농수축산식품 등 90여 종류가 이를 활용하고 있는 데다 걷기 열풍에 힘입어 ‘슬로시티 수련의 길’이라는 도보 코스도 개발된 상태여서 퇴출 여파에 민감한 실정이다. 특허청에 출원된 슬로시티 관련 표장만도 신안 증도가 3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장흥도 5건에 달하고 있다.

슬로시티 자격 박탈로 국비 지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09년과 2010년 각각 37억원, 36억원에 달했던 지원액은 전국 각지에 슬로시티가 들어서면서 2011년 12억원, 지난해 11억원으로 점차 줄어든 상황인데 이번 퇴출로 추가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다.

축제에도 찬물이 끼여들었다.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지역 대표 축제인 물축제와 연계해 슬로시티 축제 한마당을 벌여왔으나 이번 퇴출 결정으로 행사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재인증 탈락 사실을 알고도 수개월간 이를 공표하지 않은 데 대한 일부 주민들과 군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찮아 군 입장에서 또 다른 짐을 지게 됐다.

한 슬로시티 관계자는 “위기는 기회라는 심정으로 슬로시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지속화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할 때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kykim@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증도대교 개통후 쓰레기 몸살

국비지원 ‘빨간불’·관광객 유치 타격



신안 증도 염전

여수, 전지훈련지 각광

골프 국가대표·요트 청소년 대표팀 잇따라 방문

박람회 개최도시 여수가 스포츠 선수단의 전국 최고 전지훈련 장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국가대표 골프선수단(감독 김봉주)이 지난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여수 경도와 시티파크, 디오션 골프장에서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골프 선수단이 이번 훈련동안 동계 전지훈련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사전답사를 병행할 계획에 따라 올 겨울 150여명의 국가대표 선수단(상비군 포함)이 여수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2013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단이 8일부터 19일까지 흥국체육관에서 하계훈련을 실시한다.

지난해 하계 전지훈련을 여수에서 실시했던 우리은행 농구단은 올해도 우승을 위한 최선의 훈련지로 여수를 선택했다.

이밖에 요트 청소년대표팀과 2013 스포츠 토트배 한일 실업탁구 정기전, 전국고교야구 주말리그전 등이 이달에 열릴 예정이어서 1500명의 선수단이 여수를 방문하게 된다.

이처럼 여수가 최적의 전지훈련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선수단 훈련에 적절한 기후, 맛있는 음식, 수준급의 체육시설 등 스포츠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한 여수시의 꾸준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동계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유치 등으로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 78억원의 막대한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 달 민간 합동 ‘스포츠마케팅 분야’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전국단위의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와 스포츠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소각폐열로 年 5천만원 예산절감

장흥 그린환경센터, 시간당 132kW 전력 생산

장흥군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인 ‘그린환경센터(사진)’가 이달부터 버려지던 소각폐열로 전력을 생산해 자체 사용함으로써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시간당 최대 132kW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전기사용 요금의 42%에 달한다.

이와함께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위생매립 시설의 일부 유휴 나대지에 327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발전시설이 가동되면 장흥소각장에서 연간 사용되는 전기요금 1억 2000만원을 전량 충당하고 일부는 매 전까지 가능하게 된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을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검토 중이다”면서 “전남도에



서 유일하게 장흥군이 직접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 위탁시설에 비해 연간 7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

했다.

/장흥=김용기기자·충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천일염도 ‘생산 이력제’

전남도, 인증 라벨 부착

수입산 소금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한 천일염 생산 이력관리제가 본격 시행된다.

전남도는 수입산 소금이 국산 천일염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5억원을 들여 천일염 생산

이력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일염 생산 이력 관리제는 천일염 포장재에 정품 인증 라벨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대한염업조합에서 시행한다. 정품 인증 라벨은 10kg와 20kg 규격포대에 부착하며 총 1584만개를 제작해 28만70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청출어람’ 보성 발효차

郡, 中에 500kg 수출계약

보성군에서 생산된 발효차가 보이차의 본고장인 중국으로 수출된다. 보성군은 보성 발효차 생산법인인 승설독차와 중국 영락건강축차박물관이 보성 발효차 중국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승설독차에서 생산된 발효차 500kg을 중국 영락건강축차박물관이 수입, 제품의 전시와 판매

를 맡아 중국 내에 유통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참가한 ‘베이징국제차박람회’에서 보성차 홍보부스에 들른 영락건강축차박물관 관계자가 보성차의 맛, 우수성, 안전성에서 신뢰를 갖고 추진됐다.

중국 후난성 영락건강축차박물관은 2009년 개장해 2000㎡ 규모의 박물관과 자체 매장,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3人3色 색깔이 살아있는

TV조선
뉴스쇼

와

매주 월~금 밤 9시 4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